

여성들의 용기에 박수를..가다 아메르展

2013-05-16 15:24:10



<여성들의 용기에 박수를..가다 아메르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 맞서 수개월간 이어진 민주화 혁명에서 진압 경찰들에 발길질을 당해 쓰러진 한 여성의 옷이 벗겨져 파란 브라지어가 노출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세계로 퍼져 나갔다.

우연히 이 영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이집트 출신 여성 작가 가다 아메르(Ghada Amer.50)는 물리적 폭력을 감수하면서도 민주화를 부르짖은 이 여성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작업 중이었던 대형 브론즈 조각에 그 여성의 기억을 담아 ‘파란 브라지어의 소녀들(The Blue Bra Girl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실제 사람의 크기로 제작된 이 조각은 여덟 명의 여성이 머리와 어깨를 대고 빙 둘러서 있는 형태로, 속이 텅 비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데 마치 브론즈로 드로잉한 것처럼 수많은 선이 모여 달걀 같은 형태를 이룬다.

그는 오는 17일부터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 ‘그녀에 대한 참조’를 통해 이 브론즈 조각 연작과 이란 출신 작가 레자 팔콘더와 협업으로 제작한 자수(실)와 수채화가 어우러진 회화를 선보인다.

16일 낮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문제의 영상을 보고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며 “당시 그 여성은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지만 내 작품 속 여성들은 일어서 채 정면을 응시하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채화에 자수를 곁들인 작품에 대해서는 “2000년 우연히 팔콘더와 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을 즐기게 됐다”며 “‘바느질’이라는 여성적인 매체를 통해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아메르는 많은 주제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성적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이 때문에 페미니즘 작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저는 우선 작가이지만 여성이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는 마치 작가는 남성이어야 하듯 여성 작가 앞에는 굳이 ‘여류’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그게 문제죠. 관심이 가는 주제를 다루는 것인데 그게 ‘여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느낌의 ‘중동 작가’로 분류되는 것보단 페미니즘 작가가 낫겠네요.(웃음)”

전시는 6월 30일까지. ☎02-735-8449.